

## 미결과 완결 사이, 영원의 사랑

: 〈에로스의 종말〉을 통해 알아보는 영화 〈헤어질 결심〉 속 헤겔의 사랑론

영어영문학과 202127851 정수아

### 목차

1. 서론
2. 본론
  - 2.1. ‘해준’의 에로스
  - 2.2. ‘서래’의 에로스
  - 2.3. ‘해준’과 ‘서래’, 둘의 에로스
3. 결론
4. 참고문헌

### 1. 서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 영화 〈헤어질 결심〉 중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한 마디이자 헤겔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시작이다. 한 번 상실을 겪은 뒤 재탄생하는 것. 그것이 헤겔이 말하는 사랑이다. 〈에로스의 종말〉에서 한병철 저자가 헤겔적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흔히 타자를 폭력적으로 붙들어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헤겔 사유의 중심 형상으로 이해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타자로부터 자기 자신으로의 화해로운 귀환”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한 뒤에 오는 타자의 선물이다.”

- 〈에로스의 종말〉 3장 별거벗은 삶 58페이지 중

헤겔은 사랑에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죽음을 무릅쓰는 사랑, 부정적인 것과 대면하며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찢기고 열리는 것을 사랑으로 보았다. 내 안의 타자성으로 내가 나다움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주-객 동일성 속에서 오로지 사랑이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헤겔은 사랑의 개념을 철학 원리로서 깊게 사유한 철학자로서, 사랑은 “다른 인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한에서 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한에서” 또는 “흡사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며 느끼고 활동적인 한에서” “이성”에 친숙한 “경험적 성격의 근본 원리”이다.<sup>1</sup>라고 이야기한다.<sup>1</sup>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사랑이란 이성적으로 작동하며 작용하는 도덕적인 감정인 것이다. 헤겔은 이성과 감정과 같이 이원적 분리를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립하고 극복하고자 했고 합일의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철학에서의 사랑은 숭고하고 미학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정신적 연대를 지향하는 한 ‘관념’처럼 보인다. 즉, 실재적인 개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정의된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있을까?

〈헤어질 결심〉에서 두 주인공 ‘해준’과 ‘서래’는 자기-발견과 자기-희생을 통해 헤겔의 사랑을 실현해나간다. 둘은 성별도, 국적도, 신분도, 사회적 지위도 전부 다르다. 하지만 작품 속 시간의 전개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이질적이었던 해준과 서래가 가진 공통점이 드러나고 서로 닮아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질적인 ‘타자’의 관계에서 동일성의 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에로스의 종말〉에서 보여주는 헤겔적 사랑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해준과 서래의 마침표가 없는 미결과 완결 그 사이의 사랑과, 부정성과 긍정성이 공존하는 헤겔적 사랑이 어떻게 닮아있는지 해당 보고서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

<sup>1</sup> 남기호, "헤겔의 "사랑" 개념과 그 철학적 위상 변화" 시대와 철학19, no.4 (2008), p.4

## 2. 본론

헤겔적 사랑과 <헤어질 결심>에서의 사랑을 연결하여 공통점을 찾기에 앞서, 먼저 영화 속 주인공들의 서사를 알아보고 그들의 에로스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둘의 서사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해당 보고서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다. 또한, 헤겔의 철학을 두 주인공의 작품 속 행동과 대사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할 것이므로 주인공의 서사를 작성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 2.1. ‘해준’의 에로스

그들의 첫 만남은 부산에서 시작한다. 경찰인 해준은 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내인 용의자 서래를 만난다. 수사의 명목으로 서래의 일터와 집을 맴돌며 과도할 정도로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한다. 그러다 둘은 호감을 느끼며 해준은 서래를 향한 의심과 경계를 푼 채로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해준은 서래의 일터에서 결정적인 증거(휴대폰)를 발견하고 직접 서래가 갔던 산의 루트를 따라 가다 사건의 진상을 마주하게 된다. 서래가 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해준은 이렇게 말하고 떠난다.

“내가 품위 있었죠? 품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할머니 폰 바꿔 드렸어요, 같은 기종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sup>2</sup>

— 영화 <헤어질 결심> 중

이포에서 해준과 서래는 살인사건의 경찰과 피해자의 아내이자 용의자 신분으로 다시 마주한다. 부산에서와 달리 해준은 서래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날카롭게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나간다. 그러던 중 그들은 호미산에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산에서의 마지막 만남 때 해준이 서래에게 주었던 휴대폰을 서래가 해준에게 다시 건넨다. 그리고 서래는 해준의 영원한 미결 사건으로 남기 위해, 해준이 서래에게 건넸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의 말을 다시 해

---

<sup>2</sup> 박찬욱 (감독). (2022), *헤어질 결심*[영화]. 모호필름.

준에게 전하며 홀연히 사라진다. 이미 서래를 잃은 해준은 바다를 헤집으며, 목놓아 애타게 부른 후에야 서래의 입장에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다.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둘러싼 관계망이 무궁함을 깨닫기 시작한다.”<sup>3</sup>

- 〈월든〉 마을 227 페이지 중

〈월든〉에서 소로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준은 두 번의 ‘길 잃음’으로 즉, 자기 인식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다. 첫 번째 길 잃음은 ‘붕괴’이다. 해준이 서래에게 휴대폰을 건넬 때, 해준은 서래에게 본인이 붕괴되었다고 말한다. 즉, 경찰로서 수사를 잘 진행해나가야 하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기대와 달리 수사를 망치고 만다. 사회적 체면과 자부심은 어쩌면 해준에게 ‘길’이었을 것이다. 그가 하루를 살아가고 직업적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하지만 수사를 망치고 난 후 그는 길을 잃었고, 그 속에서 방황하다 서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언뜻 보면 사랑의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포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해준의 태도를 보면 서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길 잃음은 ‘서래의 사라짐(죽음)’이다. 해준은 서래를 잃고나서야 그것이 사랑이었노라고 이야기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준이 서래에게 휴대폰을 건넬 때 전했던 말에서 서래가 찾아낸 사랑의 정의를 잃은 것이다. ‘무너지고 깨어짐’, 붕괴의 사전적 정의 속에서 발견한 사랑을 깨달은 해준은 다시 한 번 길을 잃고 여전히 서래를 사랑함을 느낀다.

반드시 길을 잃는 경험이 있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헤겔의 변증법과 해준의 서사는 매우 닮았다. 자기 상실을 통해서, 믿음 체계와 신념 그리고 ‘나’가 찢어지고 나서야 재탄생하는 변증법의 구조는 〈헤어질 결심〉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헤겔적 사랑 중에서 타인의 대한 인식 부분은 해준의 수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부의 대상 A와 나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우선 이 A를 인식 하고 사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 A에 대해 사유된 것을 나는 내 외부에 실재로 있는 이 A의 자리에 정립한다.<sup>4</sup> 해준이 서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은

---

<sup>3</sup>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문예출판사, 2019, 227 페이지

<sup>4</sup> 남기호, "헤겔의 "사랑" 개념과 그 철학적 위상 변화 시대와 철학19, no.4 (2008): 7 페이지

수사의 목적으로 서래를 감시하고 관찰 일지를 녹음하는 해준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래의 일터와 집,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고 맴돌며, 단지 경찰-용의자 관계에서 호감을 느끼며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준의 에로스인 ‘붕괴’는 헤겔적 사랑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준의 에로스는 ‘붕괴’이다.

## 2.2. ‘서래’의 에로스

서래는 자신을 때리고 학대하는 남편을 산에서 밀어 추락시킨다. 이 사건으로 해준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감시당한다. 감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둘은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나간다. 그러다 해준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고 서래에게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주고 떠난다. 해준이 했던 ‘붕괴’라는 말을 곱씹으며 사전적 정의를 찾는 서래는 마침내 사랑을 ‘무너지고 깨어짐’이라고 인식하며 사랑이 시작된다. 이때 서래는 해준의 말을 녹음해두어 반복해서 재생하며 곱씹는다. 해준이 자신의 붕괴를 고백하며 서래에게 했던 말을, 서래는 해준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했음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포에서 살인사건의 경찰관과 용의자이자 피해자의 아내로 다시 만난다. 해당 살인 사건에서 서래는 살인을 유도한 인물이다. 새 남편이 해준의 말이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해준의 사회적 지위 추락으로 서래를 협박하자, 서래가 사철성(새 남편에게 사기 당한 인물)의 엄마를 죽이고 새 남편과 사철성이 만나도록 유도하여 살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래는 ‘파랑으로도 보이고 녹색으로도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시체를 처리한 후 죽은 새 남편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호미산에 해준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첫번째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다시 해준에게 건네며 그의 영원한 미결사건으로 남기로 결심한다. 마지막엔 서래가 바다에서 모래 굴을 판 후에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는 것을 보며 죽는다.

서래는 ‘아토포스(atopos)적’인 인물이다. 어떤 장소에도 고정될 수 없는, (의미의) 장소를 결여한 자로서의 지위<sup>5</sup>를 가지고 있다. 마치 이 영화의 OST인 〈안개〉처럼 홀연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마지막엔 결국 사라진다.

헤겔의 사랑론의 부정성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아토포스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한계를 시사하는 아토포스처럼 부정성 또한 우리에게 닫힌 세계를 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

---

<sup>5</sup> 김주은,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HOMO MIGRANS, 130, (2015), 103 페이지

로 참된 진리 즉, 사랑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아토포스가 필요하다. 이는 사랑을 존재론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사랑이 세계의 단절이자 새로운 열림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sup>6</sup>을 보여준다. 작품 내에서 해준과 해준과의 시간은 서래의 감정의 벽과 틀을 부수게 해준 것과 같다. 영화 초반 해준과 만남을 이어갈 때 서래의 감정과 마음은 영화 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 서래의 감정은 명백한 ‘사랑’이다. 이를 통해서 서래는 해준의 에로스와 아토포스를 통해서 참된 삶이자 진리인 사랑을 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래는 바타유의 에로티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의 부정성과 연속성 추구를 가장 잘 실현하게 하는 존재이다. 바타유는 에로티즘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바타유는 필멸하는 개체를 ‘불연속적 존재’로 보고, 모든 불연속적 존재는 그와 반대되는 불멸, 영원, 전체의 의미에서의 ‘연속성’을 염원한다고 본다. 연속성에의 염원은 곧 불연속적인 개체가 한낱 유한자로서 소멸될 것을 거부하고, 영구한 연속 성에 참여하려는 강한 생의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연속성은 인간 개체의 경계를 구성하는 불연속성을 파괴하는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강한 연속성에의 열망은 이미 죽음마저 초월해버리는 무서운 광적 상태를 뜻하게 된다. 바 타유가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인정하는 삶(l’approbation de la vie jusqu’à la mort)”<sup>2</sup>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지시한다.<sup>7</sup>

- 김효영 「"바타유의 ‘에로티즘’ 개념에서 ‘죽음’의 의미」 중

서래는 해준의 미결 사건으로 남길 원한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사건으로 남길 원하며 영원이라는 연속성을 추구한다. 불연속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를 이어주는 연속성의 의미를 갖는다. 에로스적 경험의 본질적인 성분인 죽음의 부정성은 연속성에 대한 강한 염원인 삶의 충동이 자아의 경계를 해체한다. 삶의 충동은 소멸을 거부하는 부정성으로 죽음의 충동을 표출한다. 즉, 연속성을 갈망한다. 플라톤의 아토포스적 개념과 바타유의 에로티즘을 결합했을 때, 서래의 에로스는 ‘죽음’이다.

---

<sup>6</sup> Ibid., 120 페이지

<sup>7</sup> 김효영. "바타유의 ‘에로티즘’ 개념에서 ‘죽음’의 의미: ‘비인칭적 죽음’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프랑스 문화 연구 45, no.1 (2020): 33 페이지

### 2.3. ‘해준’과 ‘서래’, 둘의 에로스

서래씨가 나하고 같은 종족이란 거, 진작에 알았어요.

- 영화 〈헤어질 결심〉 중

영화 초반, 해준과 서래가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할 때, 둘은 피상적인 사랑을 나눈다. 이때, 피상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병철 저자가 경계하고 비판하는 긍정성만이 존재하는 사랑, 그리고 작품 내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로 겉도는 사랑이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는 해준의 붕괴, 서래의 죽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헤겔적 사랑에 도달한다.

〈헤어질 결심〉에선 유독 해준과 서래의 오버랩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이중운동이며 하나이자 둘이라는 헤겔의 사랑론을 잘 보여주는 장치이다. 분명 서로 이질적이고 타자임에도 동일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헤겔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랑론인 ‘상호기반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주체가 되어 사랑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해준과 서래의 동일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해준은 흡연자이고 서래는 살인자이다. 영화 도중 첫번째 사건에서 해준의 수사 파트너는 “당연히 엄마 죽인 게 남편 죽인 증거는 아니죠. 하지만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라고 이야기한다. 두 행동 사이의 유사점이 있고 그 유사점으로 묶여있는 두 행위는 해준과 서래를 서술한다. 또한, 그들은 서로를 관찰하고 관찰일지를 녹음으로 남겨둔다. 첫번째 사건에선 해준이 서래를, 이포로 이동한 후엔 서래가 해준을 말이다. 그리고 둘은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고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헤겔이 이야기하는 자기-발견 계기이다. 자아가 타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타자의 침입을 환대하며 기존의 자기가 찢어지고 자기발전에 오른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자아와 타자가 통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에선 자기-발견의 계기가 자기-양도의 계기와 함께 다시 한 번 나온다.

더 많이 줄수록 가진다? 헤겔의 사랑론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하지만 헤겔적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사랑은 동시에 쟁취하는 행위이다. 해준이 서래에게 휴대폰을 줄 때, 서래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해준에게 그 감정이 향한다. 반대로 서래가 해준에게 휴대폰을 줄 때, 해준의 사랑의 감정과

애뜻함은 서래에게로 간다. 이것은 타자를 통해 자아를 찾는 자기-발견의 계기와 무언가를 주고 받는 행위에서 자기-양도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두 행위를 함으로써 둘은 상호주체로 재탄생한다.

헤겔의 사랑에서의 핵심은 ‘상실 후 재탄생’이다. 그리고 해준과 서래는 상실을 겪었다. 해준은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품위와 직업의식을 상실했고, 서래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고 삶을 상실했다. 해준의 에로스인 ‘붕괴’ 이후에 바다에 휴대폰을 버리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했고, 서래는 해준에게 사회적 체면과 품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철성의 역린을 건드려 그를 움직이게 하여 해준을 빌미로 험박한 임호신을 죽게 한다. 그리고 해준의 미결사건으로 남기 위해 자살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보는 핑크빛의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헤어질 결심>에서의 삶과 죽음 경계에 놓여진, 긍정성과 부정성을 지닌 회색 빛의 사랑이 헤겔적 사랑이다. 해준과 서래의 에로스는 ‘상실’이자 ‘희생’이다.

### 3.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병철의 주목할 만한 에세이를 읽는 것은 고도의 지적 경험이며,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투쟁 가운데 하나에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랑의 수호, 혹은 랭보Arthur Rimbaud가 말하듯이 사랑의 “재발명”을 위한 투쟁이다.

- <에로스의 종말> 서문 12~13 페이지 중

<헤어질 결심>에서의 해준과 서래의 사랑은 헤겔적인 사랑을 잘 보여준다. 자기-양도와 자기-발견의 계기부터 내 안의 타자성으로 내가 나다움의 이르는 과정, 상실과 상호주체로서의 재탄생까지 헤겔의 사랑론은 <헤어질 결심>에 잘 녹아들어가 있다. 해준과 서래는 각자 자기 안에서 사멸하지만 타자 속에서 다시 소생한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 미결사건으로 소생한다. 해준에게 서래는, 서래에게 해준은 파도가 와도 쏠려 없어지지 않는 발자국이다. 마치, 영화에서 서래의 모래 굴 더미가 파도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해준과 서래의 사랑은 미결과 완결 그 사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사랑을 찬미하지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우리가 띄는 사랑의 색채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에로스의 종말> 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랑은 발명의 행위이자 창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논리를 펼치고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한 헤겔의 사랑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던진다.

헤겔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쉽지 않다. 또한, 이를 실천윤리로서 적용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한병철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사랑은 긍정성만 가득하고 부정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에서 두 주인공이 러닝타임 138분동안 자유롭게 그들만의 독창적인 헤겔적 사랑을 보여준다. 즉, 헤겔의 사랑론 속에서의 사랑이 관념적이며 실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 반론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헤겔의 사랑은 실재적인 개념이다.

<헤어질 결심>은 이를 증명해냈다. ‘마침내’.

#### 4. 참고문헌

- ① 김주은.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3(2015) : 103-123.
- ② 김효영. "바타유의 ‘에로티즘’ 개념에서 ‘죽음’의 의미: ‘비인칭적 죽음’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프랑스 문화 연구 45, no.1 (2020) : 31-61.doi: 10.18022/acfco.2020.45.1.002
- ③ 남기호. "헤겔의 "사랑" 개념과 그 철학적 위상 변화" 시대와 철학19, no.4 (2008): 1-25.
- ④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문예출판사, 2019